

제주지역 관광-기상서비스 콘텐츠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Tourist-Weather Service Contents in Jeju Region

김인겸*, 박기준*, 김정윤*, 김백조*, 박길운**
국립기상연구소*, (주)동녘**

Kim in-gyum*, Park ki-jun*, Kim jeong-yun*,
Kim baek-jo*, Park gil-un**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The east co.**

요약

본 연구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올레길 방문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콘텐츠 개발에 앞서 현재 제주도에 서비스되는 기상정보의 종류를 살펴보고, 올레길 방문자들의 기상정보 활용실태를 설문조사 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결과를 참고하여 올레길 방문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I. 서론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2013년에는 내·외국인을 합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특히 2007년 제1코스 개발이 시작되어 2012년 제21코스가 완성된 제주도의 일주로 관광지인 올레길은 전국에 걸친 열풍을 몰고 온 대표 관광지이다. 올레길 방문객도 2009년 20여만 명 수준이던 것이 2011년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올레길 관련 기상 서비스는 접근성이 낮거나, 단편적인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올레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서비스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제공될 맞춤형 기상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기상서비스 제공 현황

1. 제주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올레 길 기상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스별로 3시간 간격의 동네예보(강수확률, 강수량, 최저/최고기온, 바람, 습도)와 생활기상지수(자외선, 식중독, 불쾌, 열지수, 체감온도 등), 주간예보, 한라산 산악예보, 개화/단풍, 일출/일몰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2. 제주관광공사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날씨, 동네예보,

주간예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코스별로 3시간 간격의 동네예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레길 외에도 숲길, 오름, 한라산, 해변/섬, 골프장의 날씨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올레길의 모든 코스 정보를 날씨 정보(기상상태, 기온, 풍속, 습도)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기상정보 제공보다는 코스 주변의 해양문화 콘텐츠에 대한 설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4. (사)제주올레

날씨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올레길 코스 소개 및 주변 볼거리, 숙소/맛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사진과 글을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이메일 주소와 별명 입력을 통해 가입해야하고,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III.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1. 조사개요

설문은 2014년 6월 13일부터 2주 동안 실시되었다. 올레길 1, 4, 6, 10, 11코스의 안내소 내부에 설문조사 부스를 설치하여 146명의 설문지를 수거할 수 있었다. 응답자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47:53으로 비슷하였고, 20~50대의 비율이 전체의 93%이다. 설문은 기본 인적정보, 올

레길 도보시 기상정보의 중요성 및 활용 기상요소/정보 입수처/만족도, 제주지방기상청의 '제주올레 길 기상안내' 이용현황 및 만족도, 필요한 기상요소 및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수요로 이루어졌다.

2. 조사결과

설문조사 결과 기상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93%, 기상정보를 이용한 적이 있는 관광객도 88%로 높게 나타났다. 75%의 관광객이 제주 도착 전에 기상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올레길 코스를 계획하거나 여행 출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로 기상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 주로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매체는 기상청 홈페이지/날씨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였고, 민간 기상업체의 기상정보 활용은 10%로 비교적 낮았다. 기상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11%의 관광객들은 어디서 기상정보를 제공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50%에 달했고, 다음으로 기상정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사용하는 기상요소는 기온, 강수량, 강수유무 정보이고, 그밖에 기상특보, 풍향/풍속, 자외선 지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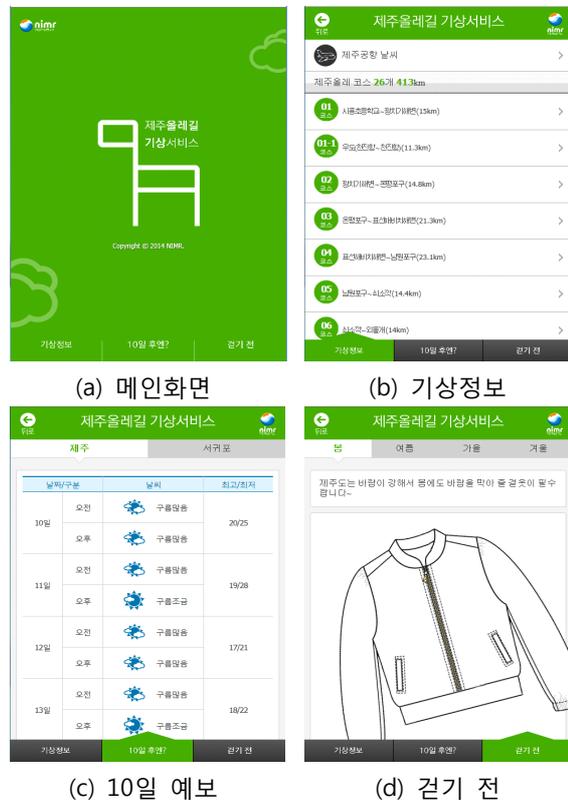
제주지방기상청이 제공하는 '제주 올레 길 기상안내' 서비스의 경우 필요한 기상정보의 보유, 예보시간 간격의 사용 용이성, 간단한 사용방법 등이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52%는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IV. 올레길 기상서비스 콘텐츠 개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될 콘텐츠에서 제공할 정보요소를 선정하였다. 기상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서 날씨, 강수확률, 기온, 풍속, 습도, 체감온도, 불쾌지수, 열지수, 자외선지수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변경이 내륙이 비해 힘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교통편 확보 및 스케줄 조정 등의 판단에 도움이 되려면 최소 7일 이상의 예보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기상청에서 서비스 중인 10일 중기예보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기상청의 AWS, 초단기예보, 동네예보, 중기예보, 기상특보, 생활산업기상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제공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및 UI 디자인 구현을 위해 메인화면에서 코스를 선택하고, 예보화면에 각종 기상정보를 제공하며, 10일 중기예보와 함께 '걷기 전' 메뉴에서는 계절별 올레길 탐방에 필요한 준비물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보 표출은 이해가 쉽도록 그래프, 이미지 등의 시각적인 표출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림 1은 개발될 콘텐츠의 프로토타입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관광 만족도에 기상정보의 정확·신속성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올레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올레길에 특화된 맞춤형 기상정보 및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서비스는 테스트를 거쳐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오류 수정 및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기상청은 제주의 관광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상정보 서비스 발굴을 확대하고 있고, 기상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상기의 노력들은 제주 지자체와 민간 기상사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관광객들의 기상서비스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 '제주 올레길 기상서비스' 콘텐츠의 프로토타입 개발 화면

(jemas.howweather.com/olle)

■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국립기상연구소 2014년도 주요사업 "예보기술지원 및 활용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